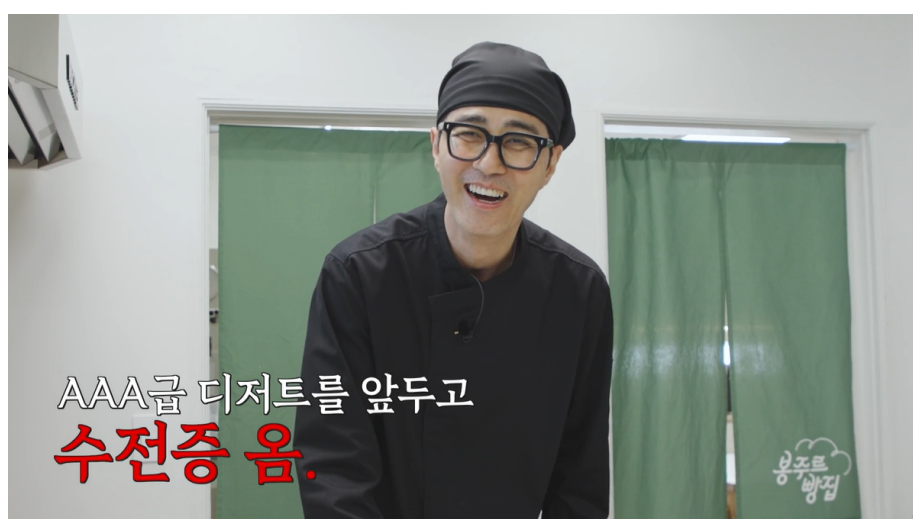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예능 ‘봉주르빵집’ ‘제빵왕’ 차승원을 춤추게 한 ‘생노토레’?! “보약을 먹었구먼” 91세 할아버지 극찬 폭발!

2026. 6. 22.







쿠팡플레이 예능 <봉주르빵집>이 고난도 디저트 라인업의 성공과 함께, 어느새 일상이 된 어르신들의 웃음꽃 가득한 하루를 비추며 진한 여운을 선사했다.

<봉주르빵집>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문을 연 국내 최초 ‘시니어 디저트 카페’를 배경으로 인생의 맛을 아는 어르신들과 행복의 맛을 아는 빵집 식구들이 달콤한 위로와 온기를 나누는 힐링 베이킹 예능.

지난 19일(금) 공개된 7화에서는 11인 단체 손님을 포함한 역대 최다 인파 속에서도 완벽한 호흡을 자랑한 홀팀과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은 주방팀의 눈부신 활약이 그려지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이날 주방에서는 ‘차셰프’의 위대한 도전기가 펼쳐졌다. 차승원은 어르신들이 한 조각씩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세로형’으로 재해석한 ‘봉주르 딸기 바닐라 밀피유’를 선보여 감탄을 자아냈다. 물결 크림을 완벽하게 올리기 위해 허공을 향해 끊임없이 크림 짜기 연습을 이어가던 그의 집요함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하이라이트는 오후 시그니처 메뉴 ‘봉주르 현미 유자 생토노레’였다. 차승원 스스로 “**디테일 지옥**”이라고 표현할 만큼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꽃잎 크림 짜기 공정이었지만, 수차례의 사투 끝에 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생토노레를 탄생시켰다. 성공 직후 주변의 우렁찬 연호 속에서 격정적 춤사위를 선보이는 차승원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도 짜릿한 쾌감을 안겼다.

완벽한 공조를 선보인 ‘홀벤져스’의 활약도 감탄을 자아냈다. 이들은 역대 최다 단체 손님의 기습과 오렌지 에이드 11잔이라는 주문 폭주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았다. ‘일잘러 알바생’ 이주빈이 홀과 주방을 오가며 에이드 제조에 힘썼고, 김선호는 특유의 싹싹함으로 할머니 손님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바쁜 와중에도 손님들의 안부와 직원들의 당 충전까지 챙기는 ‘사장님’ 김희애의 섬세함은 빵집의 온기를 한층 더했다.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고창 어르신들의 변화였다. 프랑스 디저트라는 낯선 문턱 앞에서 망설이던 어르신들이 어느새 매일 빵집을 찾고, 머물다 가는 즐거움을 만끽하게 된 것. 아흔한 살 할아버지는 생애 처음 맛본 밀피유 한 조각에 “보약을 먹었구먼”이라며 감탄을 쏟아냈고, 하루에 두 번씩 방문하는 김선호의 열혈 팬 할머니부터 “노인네들이 신났어! 어찌다 이 빵집이 생겨가지고!”라며 행복해하는 할머니들의 유쾌한 외침까지, <봉주르빵집>이 전하는 무해한 힐링의 진가를 고스란히 증명해 보였다.

시골 마을의 정겨운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힐링 예능 <봉주르빵집>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오직 쿠팡플레이에서만 만날 수 있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